餓死地境에빠진 咸州下岐川面一帶

葛根이나마업서서 饑饉民路頭에彷徨

當局은火田耕作不許

【함흥】 심각한경제불황으로 농촌도시(農村都市)할것업시 세민층에 생활은빈궁에 싸지어 긔근민(饑饉民)과 유리자(流離者)가 속출하고잇다함은 루루히보도되는 바와갓거니와 함주군하지천면(咸州郡下岐川面)은 산간지대로 전면호수(全面戶數)가 전여 호라는바 달은 면에비교하야 매우 빈궁상태에잇다하며 전면십삼개리, 중에 중흥리(中興里)신풍리(新豊里) 동흥리(東興里)진흥리 일이구(鎭興里一二區)는 더욱심하야 작년도(昨年度) 흉작으로 작년 여름동안 풋쌀을훌려가며 농사를 지어도 일개월의양식도 엇지 못하엿다하며 근산(近山)에서 화전을 경작하여 먹든것도 근래에와서는 도(道)에서 금지함으로 그도부처먹지못하게되야 현재는 갈곳업서 남녀로소업시 산에올나갈근을 캐여다가 겨우연명하여 가든바 그도결핍하야 아사상태(餓死狀態)에 잇다고 하는데 일반은그들의 생도를념려한다고한다。

邑議無視로 當局과邑會間紛糾

읍회의원이일치하야 제의안전부를부결

【동래】 동래읍(東萊邑)의 호별세 오산문제(戶別稅誤算問題)는 또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날이갈스록 더욱문제가 확대화되어간다。

동래읍회의원(東萊邑會議員)一동은 읍당국에서호별세를 과중부과한 실책이외에 읍회에 서결정한 산본모(山本某)의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야서 읍회의결의를 무시하얏은 다고 강경한태도로 읍당국에 항쟁하는중이다

그런데 지난二十일에 동래읍에서는 제十二회 읍회를열고 온천정추가굴착(溫泉井追加掘鑿)에 관한의안외 三의안을 제안하얏는데 읍회의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야 의안전부를 부결하는동시에 현읍당국을 불신임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서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하야달라고 동래읍장에게 제출하얏다한다

安鎭間街道 明年엔完成

【안성】 안성(安城)유지가 오래전부터 운동중이든 안성진천(鎭川)사이의 도로수축은 二개년 계속사업으로 긔공하게되어 제一긔공사비 六천九백八十원중에서 지방비 二천四백八十원과 안성면에서 부역九천명의 환산대금二천七백원을 내인외에 금광면(金光面)에서 부역六천명을 내여서 저간공사중이든바 이번에 옥정현(玉井峴)까지 대부분이 준공되엇다는데 지방비로 시행할교량 암석절개공사등은방금공사에 분망중인

關東名勝 海金剛의松島

藝妓組合 料亭과抗爭

쌍방모다강경

【사리원】 황해도사리원읍내각료리점에서는 지난十九일부터 一체히기생을 부르지 도안코 또한 예기조합(藝妓組合)에서도 각료리점에 기생을일체보내 주지도안는 쟁의사건이 발생되엇다

이제 그사건의 내용을드러보면 예기조합측에서는 각료리점에서 시간대의 보증금으로 一백원씩을 예기조합에 밧치든가 또한 그러치안흐면 三백원에해당한 계약서를하야 달나는 요구가잇는싸닭에 전긔각료리점에서는 이에대항하야 一체히기생을 부르지안키로되엇다는 사건인데 쌍방의형세는 모다강경하야 피차중에잇스며 군농회에서 장려나 추시세가업서 일반은우려 하야 식상(植桑)을하든것이이 현상으로간다면부득히상원을 업실수밧게 별도리가업다고 한다는데 현시가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安州에서 春蠶共販開始

【안주】 평남안주(平南安州)에서는 지난십칠일부터 춘잠공동판매를 개시하야 당일에 약육십관이며 매매되어 각각리점부근주민이 갓버하는 어부의 리익을주고잇다 한다

그런데 어사건 발생이후로 예버되인다고한다

◇生繭販賣價一貫付

特等	一、五六
一等	一、四三
二等	一、三〇
三等	一、一七
四等	一、〇四
五等	、九一

公文書僞造한 寧邊郡兩雇員

각一년반懲役을求刑

【新義州】 전녕변(寧邊)군 동부동(東部洞) 김창수(金昌洙) 동군읍내 동부동 공판은 지난二十일신의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굴부(堀部) 재판장주심 문(文)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엇다 동인은재 무게에서 부동산취득세취급을 과회로 소화二년十二월로부터 작년九월十二일까지 수백명피해자로부터 막대한금액을 공문서를 위조사취한사실의 심리가끗나자 검사는 一년六개월을구형하엿스며 판결언도는 오는二十七일에 잇기로 페정되엇다한다

新築落成한 開城社會館

使用制를決定

【개성】 금번 신축락성한 개성사회관(開城社會館)의 사용규정은아레와가티 결정하야가지고일반에게공개하야 대소집회에 리용시키리라고 한다

一、晝間使用料金三圓
一、夜間使用料金五圓

三百萬圓으로着手한 釜山府救濟工事

豫定人員九十萬인데 不過十萬을使用豫定

注目되는當局의態度

【釜山】 조선의 관문인부산은 해마다 각지로부터모여드는 로동자가수만에달하야 일할곳이업서서 헤매는 그현상은 뜻잇는자로는 이에관심을 마지안는터인데 더욱 금년도에는 부산부(釜山府)서에 삼백오십만원(三百五十萬圓)의 거액(巨額)으로써 금춘 착공한 목도도진교가설(牧島渡津橋架設)과 남항방사제축조간선도로부설(南港防砂堤築造幹線道路敷設)의 공사는 궁민구재사업(窮民救濟事業)이란미명을 붓처정부의 긴축절약방침(緊縮節約方針)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바더 시작한 것인데 이에사용한 로동자가 특별긔술자(特別技術者)이외에 사용한것이 겨우연인원(延人員)이만칠천이십인에임금(賃金)이 일만이천오백륙십여원이라한다 아럼으로 도진교가설공사에만 연인원(延人員)구십만인의 로동자를 사역하기로한것이 현재의 상황(狀況)대로 나아가면 불과십만을넘기가 어려울터이라한다

그러케도 불구하고각지로 홍수와가티 모여드는 로동자는무려수천명에 달하야 일할곳이업서서 헤매는그 불상한 현상은 참아눈으로볼수업시 참혹하며 더욱히요사이는 장마비로인하야 출입을못하고잇는 그들은 장차무엇을하야 주린배를 채울지몰나 장탄과한심으로 하낫만처다 볼뿐이라한다。

平高普校 讀書會事件

六名退停學

【평양】 평고독서회사건(平高讀書會事件)은피의자 권부가불구속으로 그배후의 지도자리성철(李成哲) 사건과 함께검사국에 송치된것은 긔보와 갓거니와 평고당국은이사건에 관계되엇든생도중 二명은 퇴학, 一명은 유지퇴학(諭旨退學)、三명은 정학의 처분을하얏다한다

이것은 생도들이 검거즉시 처분할것이 잇스나 경찰의취조결과를 보기위하야 아즉까지두엇다가 사건이 일단락을고하얏슴으로 처분을 한것이라한다

철로에자다가 汽車에轢死

검사원이발견

【木浦】 지난十九일에 무안군박곡면 사천리(務安郡朴谷面沙川里) 사는 김모길(金毛吉)(三一)이는술에 대취하야호남선몽탄(夢灘)역근처의철로를 베고자고잇섯다는바 동란역에서 자정시에 동파하는열차에 갈려서 즉사하엿다고 한다 그러나 그렬차차장 고교이남(高橋二男) 과긔관 사길원진(吉原長)이는 사람이 갈려죽은지도 몰르고 그대로목포(木浦)에까지 갓섯는데 렬차검사원(檢査員)이 긔차박휘

恐怖裡의釜山

傳染病猖獗

猩紅熱、腸窒扶斯는勿論 赤痢까지每日가티蔓延

◉攝生에注意할일

【釜山】 근일부산시내에는성홍렬(猩紅熱)장질부사(腸窒扶斯)등전염병(傳染病)이창협하야 일반시민은 공포에 싸이엇스며 도경찰부위생과(道警察部衛生課)와부산서(釜山署)에서는이를 방지에노력중이다、부민정일뎡목三六번지 길암선효(吉岩宣孝)(二)가 지난六월十三일부터 알코잇는것을 동二十一일 의사 송원지조(松原之助)씨가 성홍렬(猩紅熱)로진정(診定)하얏는데 동二十一일에 길암정준(吉岩正俊)(五)과 길암소자(吉岩昭子)(六)에게도 전렴된것으로 진정되엿스며부평뎡(富平町)二뎡목七一번지건물상(乾物商)정옥(金正昱)(三)은 적리(赤痢)로진정(診定)되야약질(惡疾)은 전시가를포위한모양이요시노(吉用ヨシノ)(二〇)질용(吉用チヱ子)(九)가장질부사(腸窒扶斯)로판명되엿고 또 초량뎡(草梁町)一뎡구십칠번지김모(金某)의아달김 정(大新町)一二四三번지질용屋キク子)로 비롯하야 대신여야하겟다한다 라니일반시민은특별히주의하

少婦를誘引後 賣喫라發見逮捕

一년중역의구형을바더

【海州】 해주군해남면당산리(海州郡海南面堂山里)三一번자 공성주(孔聖胄)(三二)란자는 지난五월十三일에 동강면과산리(東江面瓜山里)김운현(金雲賢)의 처 장순애(張順愛)(一九)를 유인하야 해주로데리고와서 해주남본정(南本町)리경수(李京洙)란 요리업자에게일백六十원에다팔기로 계약을하고계약금五十원을바다 소비하다발각되여 지난二十一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一년중역의 구형을밧엇다

一片의丹誠

火田細農을救濟

△奇特한德山面長

【淸州】 제천군덕산면(堤川郡德山面)은 충북제천군(忠北堤川郡)의 최남단에잇서 산고곡심한벽디로서 일반면민의생활상태는 산화뎐민(山火田民)을 위시하야 七千八百여인 이거주하는데 략칠할이상이 화뎐세농(火田細農)으로 가장빈궁한 바이다수삼년이래재개의 폭풍은 순진한 이산곡촌에까지 위협하엿스며 설상가상으로 작년의흉작은 그네들에게 사형선고를나리엇스니 일은봄부터 양식이핍절되야단순히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그날그날을 연명하야왓스나 그역시 언제까지 속은못되는 바이다 실로이참담한생활은 유독 그들뿐만아니 엿겟지마는 그래도세상문화의 혜택을입지못하는 그늘인만치 일층심각하얏다 이것을본동면 면장 박래수(朴來洙)씨는 이들의 참경을목도할째마다 동정의눈물을금치못하는 동시에월에를두고 고심초사(苦心焦思)한 남어지 생각다 못하야 수삼차구장회의를열고 동회의결의로써 궁민구제(窮民救濟)의 격문을면내에 발하야 각리유력자의동정을 구한바동 정의눈물을홀리고 금곡(金穀)을흐러 동정한특지가 가팔십여명에 달하야 그거출된금액이 이백팔십칠원삼십전에 일음으로우선 사선에 방황하는궁민 삼백이십호(三百二十戶)일천삼백사십명에게 분배하야 그들의잔명을 구호하엿고 동면 경찰관주재소(警察官駐在所)주임 토교우오랑(土橋宙五郎)씨와 협의하야제 이차의 구제방침을 세워각 구장들의 찬동을어 더불철주야하고 동분간을

大田의밤거리 嗜眠病으로 자다가死亡

【大田】 대전읍서정(大田邑 ……)九번지신성완(申 ……)을밤 아무탈업시 저녁밥을잘먹고 잣섯는데 잇흔날아츰갓처자든부인이 깨여보니 그만시체로 쫍어서어 버리엇드라는데 한통안듯을 수업든기면(嗜眠病)이 발생한것이라하야 말거리가 되여잇다고한다

……당국에까지 들리게되야 김군수(金郡守)는 양주임이하 직원일동에까지 협의하야 군직원의 열성을 나노아의 연금을 모집하야 각각분급하얏다 한다

그런중동면 수곡리에본적을두고현금 강원도횡성(江原道橫城)방면에가서 일용생활(日用生活)을 하시고잇는 최승삼씨(崔聖三)씨는 자긔도 생활난에 울면서피와땀을 흘려가며 근근히저축한 십원을 소자향리에 춘궁이심하다는 긔식을 듯고보냇다는 눈물겨운미담이잇다 이리하야 제이차의 계획도대 성공이되야이 백이십원오십전(二百二十圓五十錢)을 거출(醵出)할수가 잇섯스니 이로써 사백팔십팔호일천 구백구십삼인의 생명을 구출할수가 잇섯다한다

醉中의失足이 ― 情郞을海中에

敢勇한愛妓의救助로

九死에一生을엇게되여

◇愛妓崔錦桃도죽을번

【仁川】 작二十일밤인천항외(港外) 팔미도(八尾島)해상에서 일어난 용긔과담(勇妓奇談)―당일밤 인천부호장석우(張錫佑)씨의 삼남이면인 천신용조합(仁川信用組合)의 리사(理事)로근무하는 광순(光淳)(二五)군은수명의남자와 작반하야 당일초저녁부터 인천해상에 배를 타고 선유를하며 즐기든중 미긔의 붓는술에취흥이 도도하야 칠야(漆夜)의 고기낙기에 여념이업섯든바 자정때에 배ㅅ전에 기대안저서낙시질을하다가 대취한 탓으로 실족되여 삽질(??)되는해중에추락하야 『사람살니라』고 부르짓자 겻헤잇든 인천기생 최금도(崔錦桃)(二四)는자긔의 위험을돌볼틈업시 용맹하게도 섬수(纖手)를내어미려서 장청년을 잡엇스나 제아모리 용맹은스러우나 연약한 녀성이라 두실두실한 장청년의 체중(體重)에 반대로 잇쓸니어 금도까지 해상에추락되어 량명은해중에 희생될번 하얏스나 금도가허동거리는 사이에도 닷(錨)줄을 움켜잡게되고 장청년은금도를 웅켜안은 까닭으로 량명은다른 선객들에게 구원되어 九사의一생을 어덧다 그러나남녀량명은 그동안에 다량의해수를 마시게되어 장청년은인사까지 불성에빠진것을 인천목뢰(牧瀨)병원에 수용하야 응급의처치를 행한결과 생명에는별고업시되어 목하자택에서 정양주이고 기생금도는 혼이나서당분간은 휴양할모양이라한다

羅南附近에 藥水를發見

【羅南】 라남(羅南)부근 라적령(羅赤嶺) 중복에서는 지난十九에라남(羅南) 백남훈(白南薰)청하돈(鄭河惇)양군이 약수(藥水)를발견하야 근방주민들은 매일 모혀들어 소란을이르키는 중인데 함북도위생과(咸北道衛生課)에서는 방금시험하는중이다。

給水타溺死

【순안】 평남대동군재경리면빙장리(大同郡在京里面氷庄里) 에거주하는 평안수조(平安水組)급수원 홍종국(洪宗國)은 지난二十일 오전六시경 동수조제三호간에서 배수문을 열다가잘못되어 수로에빠저 죽엇다한다

三千里 七月號 特大

特價二十五錢 半年一圓七十五錢 一年三圓四十錢

暑中休暇의 八月號는七月號와 合倂하야 大號로 發行합니다

各處支社募集(內規星進) 京城貫鐵洞五十九 三千里社 振替京城四二八四

萬國올림픽大會로가며 (手記)夏泰權 金恩培

□三年內에自由될 重犯들 呂運亨、金俊淵、梁權煥、朴衡秉、李英들의近況과出獄後의行方을論한秘錄

최푸링會見記 京都 徐光霽

□行方不明五十八人大調査 申伯雨、李憲、崔恩喜、朴○永、金○韓○健、安○泉、趙元淑等有名人物로 行方不明의五十八人去就를暴露한稀有의秘文으로장차全鮮의話題거리

露西亞의婦人生活……李蒙

酒=酒=酒 禁酒法이實施되면 長安酒客은將奈何

▲仁川바다에배뛰위노코……金炳魯 ▲密造하며獨酌……車相瓚 ▲秘密出入할밧게……李晟海 ▲이機會에禁酒……李仁 ▲漢江의뱃노름으로……姜友 ▲密造家를探問……徐椿 ▲가보네나몬밧을가……玄鎭健 ▲露國釀酒場에就職……朴熙道

飛行機로上海參戰記 國民政府의航空中佐인朝鮮青年金鍊器氏手記

더新하는 諸陣營 ▲再興의農總本營……李智鐸 ▲權友會의將來……金銀姬 ▲衡平陣營魚龜善

○宋鎭禹·金昶濟·尹致昊 演說評

○開化黨의批判……羅雲奎

□急進하는愛蘭最後的運動……쎄레발라

□漸急한太平洋風雲과大勢……元世勳

□西伯利亞의青年朝鮮活躍……金東秀

□北滿의政治的將來와我等……金環載

□嗚呼戰慄할黃禍……伊太利首相무소리니

書報 女流文士近影 金一葉、姜敬愛、朴花城、崔義順、金源珠、許英肅、宋桂月、金明淳、崔貞熙氏等

王宮의豪華 扶餘와明沙十里

離婚한男便에게 보내는便紙(實話) □모스크바에서……林粉仙 □아해를안고울며……吳楚今 □돈쌔라간남편이……朴採玉

開化黨 長篇戱曲 羅雲奎

○最近露西亞의演劇과映畫……海松 ○全鮮幼稚園兒童作品展覽會評……女記者 ○小說 老妓……卓相珠 ○田園의이야기(詩)……片石村 ○出獄한朴吳辰女史의스케취……一記者

美展檢評……羅蕙錫

쎄베우監獄受難記

愛兒貞子에게……梁槿煥 數日前에나온딸에게보내는눈물와편지라누가울지안을가(東京府下市ヶ谷刑務所에서)

新聞記者十年波蘭史 ○上海拳銃威脅과生活……柳光烈 ○轉轉十年의歲月이여……金東進 ○無冠의帝王과남은것……安碩柱

天才敎育의是非와現敎育制度 □現制度下에선不能……(京城中東學校長)崔奎東 □天才論及그敎育……(普成專門學校講師)俞鎭午 □天分과敎育制度……(東亞日報編輯局長)李光洙 □天才無視에憤慨……(京城同德女高敎授)宋今璇

五億圓負債와農民運動方略

三千里全体會議議題 東拓、殖銀、金融組合、高利貸에서三百萬戶의朝鮮農家가진負債가五億圓에達한다 이를장차엇더케하며는고 鄭廣朝·徐椿

朝鮮日報、中央日報의永久且完全救出策? 新聞社會가緊張된이때諸의言論은傾聽할바잇다 金炳魯 鄭錫泰 朴熙道 韓龍雲 李仁

朝鮮劇場 ◇六月二十日낫부터三日間晝夜二回公開 料金 階上大人卅錢 小人廿錢 階下大人卅錢 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一九三〇年度超特作映畫總天然色映畫의全發聲! 巨匠루드위비져거氏監督 放浪의王者 12

데니스킹氏主演 자네트맥도날드嬢助演 …… 巴里는重圍中에잇다 불란서의王朝는累卵의危機에싸저잇다 巴里가軍이의일가? …… 이노래! 여긔에석기는 것은 巴里幾萬의放浪者의 死를無視하며 그의사랑하는 賤民의의 홈에依하야…… 파라마운드社全發聲映畫 와이오민그의男兒 8

團成社 ◇六月二十二日부터 쪽스名畫週間 ◇윌리암폭스超特作 全發聲映畫 알버트루-다氏監督作品 女給時代 10 …… 봄은열이다 9 알버트파켈氏監督作品 全發聲超特作 모린오사리반孃主演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當六月二十日부터封切 米國피되시映畫社提供 도무루오-망監督作品 大冒險活劇 最後의曝進 6 悲劇母性 죽어가는아버지 7 名畫 어더맛는놈 7 入場料十錢均一(但階上은廿錢) 無聲映畫常設

恩給 ……

朝鮮貯蓄銀行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家庭

어머니의상식

유아의병은 대변으로안다

여름에 더욱이 주의하십시요

여름철 더욱이 장마때는 어린이에게 위장병이 만흘때입니다 소화불량중 이질위장가다루(胃腸加答兒) 무엇이나 어린이에게 위험한 병중입니다 이러한병은 모다반드시대변에 이상잇게됩니다 그럼으로 항상어린이의 대변보는도수, 빗, 냄새등에 주의할필요가잇습니다 갓흔 설사똥이라도 회수가갑작이 늘기도하며 이상한색갈 악취가 심한등은 병이상서롭지못한증거입니다

건강 한어린이의 대변은 모유영양아와 인공영양아와는 다소 갓지안이합니다 모유의 경우에는 쌔란노른자를 개여는것갓고 그럿케냄새도업스며 하로 한회로 수회되는것이 보통입니다 인공영양아의경우에는대변이 좀되고 색갈은엷고회수는적어서 변비가되기쉽습니다 여하간에 대변보는회수가 다만아지고 고르지가못하고 물글물글하며 수분이만코 거품이잇기가 걷단칩가튼것이 잇게되며 푸르거나 검붉어나냄새가심하면 주의할필요가 잇습니다

모유 유아는 과식하거나 불규측하게 젓을먹이는 까닭에 생가는 불량도잇고 모체의이상으로 젓의성질이 변함에달아 생가는일도잇습니다 인공영양아는 젓의분량을 틀니게하거나 흔히부패한것을 먹이여 소화불량이되게합니다 인공영양의 소화불량은 더욱이 악성인경우가만아서 특별히주의 할필요가잇습니다 삼사세로 오륙세까지의 유아는무서운역리(疫痢)와 적리(赤痢)를특별경게하여야 할것으로 물근코와가튼똥에 피고름갓흔것이 석긴 이상한 냄새나는대변이 적리(赤痢)의 특증입니다

적리 에잇서서는 푸른괴를 섞운코갓흔 대변을 누게되며 악취가더욱 심합니다 여하튼여름동안 유아의건강에 이상이잇슬때 에는먼저 대변조사를 잇지마십시요 그리고 의사를청할때에도 대변을버리지말고 두엇다가 보이는것이 조흡니다 이것은 병진단상에 극히필요한것입니다

주부의상식

간기경풍에 응급수당법

어린이의 간긔경풍의 원인은 여러가지가잇스나 위장가다루(胃腸加答兒)와 역리(疫痢) 초긔에 흔히생깁니다 어린이라 하여도대개 유아에게만은것으로서 돌연경풍이 되엿슬때 의사가올동안 유급수당으로 자리에곱게누이고 몸을느직하게 편하게하여 주고 물벼개나 어름벼개를하야 머리를 차게하여주거나 냉수수건으로 얼골을씨서주는 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경풍할때이를갈게되면 쇠를 깨물게될위험이잇스니 소독커가튼 연한나무에 솜을감어 물녀두는것이 조흐며 물이나 차가튼것을 먹이지마십시요잘못먹이면 관으로 드러가서 질식케되는 위험이잇습니다

가죽장갑 빠는방법

△가죽장갑 세탁은 이려케하야보십시요 테레핀유(油)약한량과를 병에느코 약十五방울의 암모니야수를 치고흔드러둡니다

△장갑을 줄에달아노코 잇솔가튼것으로 우의물을 찍어서 고루고루 솔질함니다 그런다음에 경석분(輕石粉)을 솔에찍어서 솔질한후에 테레핀유에적신 흔겁으로 분을지어버립니다

△이려케 여러번한뒤에 잘말려서둡니다 암모니야 냄새를 느케하기위하야 향주머니를 어두면더욱조슴니다

讀者文藝

詩 夏夜雜吟 又香

비나리는밤

비가나리네! 밤비가
구슬피나리는 밤비는
서름만흔 청상과부의 눈물가치도
시름업시 줄줄나리네!
×
나는안젓노라! 쌔여진 책상압헤
머리를조이고 못생각에 취하야
시름업는비가 나릴수록
나의머리는 점점묵어웁고 어지럽고나
×
모-든것을 이즈리라고 훌훌벗고자리에 누엇스나
여름단야의 그단잠은 다-어데로가버리고
반반한 눈동자만이 천정을뚤를듯쏘고잇네
다-만 고닯흔등잔불만히 섬벅이고 고요한방안을 직히고잇슬뿐이다。

지내간생각

꿋꿋내 사라보자고
두손서로 굿게잡고서
쌔튼밤 길게잡고 맹세하든 안해
지금은어대서 무엇을 하고잇는지?
×
우수운것은 사나희의 어리석음일까?
그래도 지나간생각에 취하야
밤人잠못이루고
자리에누어서 이리저리 버둥대네!
×
그때도고옵든 그의얼굴을
잇지못하겟다고서
해가박귀여도 두번세번 어리석은생각을품은 내마음과、
야멸친 그의심사여!

어머니의마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야서는
무슨짓이라도 해주시겟다는
어지려우신 어머니의마음
오늘도또 내가 도라오기를기다리시고
밤늣도록 조을고 안지셧네!
고흔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그뜻만 본바덧스나
쌀쌀한세상에서는
나를또 악하게도 만드럿네
그러나 끗업는어머니의 인자한사랑이여!
一九三二、六、二二

『思母詩』 金彩星

어머님!
봄바람에 꽃피는오늘에도
어머님만이
소식업는이아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가슴을태우시고
얼마나눈물을흘리십니까。
×
어머님!
어두운밤과
고요한새벽에
이아들을생각하시고
남몰래가슴을
얼마나태우섯습니까。
남몰내눈물로
얼마나벼개를적스섯습니까
×
어머님!
어머님은
오직아들하나
잘못두신까닭에
힌머리휠날리는오늘에도
그키럼가슴태우며
눈물흘리시는게라고

어머님!
부대이아들을원망치마서요
이아들도어머님압헤
잇섯스면
조흘줄왜모르오리까만
오늘에×××가이아들로
한가한곳에잇지
못하게하는것을
어머님!
어쩌합니까。
어쩌합니까。
×
어머님!
이아들도
봄바람에꽃피는오늘에
어머님생각이더욱새로워
가슴태우며
눈물흘리면서도
먹을뜻을잃우고서
두주먹부르쥐고
니를갈면서
어두운밤과
고요한새벽에
험한산넘우며
깁흔물건너며
한업시한업시헤매입니다。
×
그러면어머님!
부디근심마서요。
부대눈물흘리지마서요。
그리고깃버해주서요
우서주서요
이아들의성공할날을
거기다리시면서
근심보다
눈물보다
…어서成功하라…고
빌어주서요
빌어주서요。
1932、6……끗

『廢墟의城址』 金彩星

원수의발길이두려워
피땀흘리며싸흔城이
오늘에와서자최도업고
돌맹이멧개가
발쏘레채여
테굴테굴굴러갑니다。
넷일을추억하는사람의
가슴만울리면서!
×
멧년도지나지못하여
이城이자최조차업서질줄
아!그때사람이야
어쩌뜸이나알어스리。
×
하롯밤모진풍운이
이城을문질을줄
누가알어스리
누가알어스리
×
자최업는녯城자리에는
그래도봄이오면
꽃만피녜
새만우녜
×
녯일을추억하는사람의
마음을녹일듯이
봄이으면
꽃만피녜
새만우녜
一九三二、六…끗…
咸山廢墟城址에서

그대는 가을날 가버렷지!
×
인제 그때를 回想한들 무엇하랴만――
그때는 얼마나 즐거웟든가?
쌕!쥐엿다가 그만 힘업시 노흔「우리의 握手」가
이려케까지 「기―ㄴ」離別이 될 다나!
×
아! 그째의 입지든 나무엔 푸르고 푸른 綠陰을 입으엇거늘
「온다」든 그대는 왜? 안오나?
×
아! N港에는 여름의 물결이
용당 힘잇게 뛰노오리라!
그대는 거긔 젊벙 뛰놀어
勇敢히 헤염치고잇나?
×
아! 그러나
그대는 나를 차저
한번 못와주나?
지나간 그옛날을 잇지나안엇거든……
一九三二、六、二二 平壤서
―Y君을追憶하면서―

벗생각 金相龍

그대는 제멋대로 가버렷지!
아! 가버린지도 오래다
落葉이 하나식 둘식 썰어지
×
그대는 恒常 말하엿지!
「우리는 언제나 잇지를말자」
고 그리고는
흰「니」를 번듯 나타내며 웃어보앗지!
×

勞農聯邦赤色스포ー쓰데이의示威運動(莫斯科)

새映畫 光明을등지는者 二十四日부터朝劇上映

시골만 살다가서투른 도회지로 나와서얼마아니되여 만 이십세의 생일마즌「봄부」의 마음은 말할수업시 쓸쓸하얏다 그래서그는 한어엿분녀자를 더리고엇던카페로 춤을추러갓든바 먼저가잇든 다른청년에게 그녀자는 큰모욕을당햇다 이것을본·봄부는격분하야그청년을 몹시따렷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청년은드듸여죽고 말엇다 지방검사 쌔레디는 봄부에게 동정하얏스나 준엄한법률은결국그에게 증역십년이란 판결을나렷다 그런뒤 륙년의세월은 흘럿다 봄부는 오랜동안의 옥중생활에 몹시초최하얏는데다 더구나 신경쇠약까지 걸려고생하얏다 검사를고만두고 이제는 권옥(감옥의)이되여잇는 쌔레디는가엽게 생각하야 봄부를 자기의자동차 운전수를 삼엇다 권옥에게는 메리라하는어엿분 딸이잇섯다 봄부는 어느덧 메리를사모하게되엿스나 현재의환경을 생각하면 토파할용기도 업서 오즉 멀리서숭배하고 잇슬뿐이엿다 그러나부지중 두사람의 사히에는 컴컴갓가워젓다 그러자 선서석방(宣誓釋放)의 은전을입은봄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얏다 그러나그것도 잠간동안이요 다른죄인의 범한살인사건의 유일한목격자 라하야 하수인(下手人)으로 밀고하라고 위협하얏스나 봄부는 이것을 거절하얏슴으로 다시금감방에 드러가게되여 간수들에게 학대를바덧다 그러나 수인(囚人)에게는수인으로의 엄연한 법이잇서동료의행위를 밀고하는것을 절대로 검하는것이엿다 그리하야 자유와 사랑의세계로 갈것인가 그러치안으면 입을봉하고 다시금쳐참에 가처야하나 그는지금이길에 그러나그는 차하리후자를택하야 수인의법을 배반하지안키로 생각하얏다 이째에 돌연히 수인의 폭동이일어나 한수인이간수에게 큰중상을 입엇다 그수인의 림종의 고백에의하야 참말하수인을 알게되엿슴으로 봄부는 감방에서나오게되여 즉시권옥의 방으로갓다 미리부터기다리고잇든 메리는 깃버하며 봄부의가삼에안기엿다 권옥은 이모양으로조만족한듯이 미소를 씌우고 바라보고잇섯다 (끗) (사진은동영화의일장면)

短篇小說 暴風雨(二) 咸英一作

『네! 고맙습니다!』

『여보게이거봐! 이사람 그리고 커―오날부터는 자네덜은 우리집 사람이되엿스니까 머 그리체면차릴것도 업서 북그려할것 도업고 식히는일만잘하면 그만이니까!』

『네! 네!』

『자네도아다십히 이사과밧이 사을가리나되는 큰밧인데 지금 사과나무가 이천주(二千株)에각가와 그러니 자네가 맛하서 인부덜 식히는게라든지 모든것을잘 돌아보아 웅! 오날 큰집에서 일군덜이 소독(消毒)하러 나온다고 그랫스니까 조곰잇스면 인부덜이 나올겔세 가리고루고루소독도하고 그래!』

『네! 네!』

『그리고 자네는 안에서 무엇이던지식히 시는대로 잘해 웅!』 남수는 용선의 커다려도 이가리 말하엿다

『네!』

그들은 몟번이나 굽실굽실하여가며 분부를맛흔후 자기들이 사용하라고 지정해준행랑방으로 내려와서 보짐을 푸려노앗다

『자네눈에는 엇대? 봄애는 둘다쓸만 해보이지?』

남수는 이갓치 무럿다

『아이고영감도 사람을얼는첫눈으로보고 그리쉽게 알려요! 두고지내보아야알지요』

『그야그렇치만! 그래도첫눈에 인상이 엇떠냐 말이지 허! 허!』

『글세요 보기에 맘세덜은 불양하지 안은것갓 해보이는군요 그리나 사람의 맘속을 아나! 컨질물속은 아려도한질사람의 맘은모른다는 넷말도잇는데! 호! 호!』

『흥그래도 관기모상에 타고나는 법이지!』

『영감! 참 게집은 미인인데요! 얼골이 곳잘생겻서! 호! 호!』 우스며 죽심이는 남수의 태도를살피려고 살작 것눈으로 그를처다보앗다

『그래! 그러면 못생긴것보다낫지 아무리 부릴사람이라도 쌔끗하고 어엽쁜편이 추한것보다는 훨신낫지 훗손님덜이와서 술상갓흔것을 들고단여도 그러코!』

『그야그럿치요 만! 영감이 어데! 호! 호!』

『아무리 그럿타고 자네얼골 둘재가라면 설다는 자네인데 갓겟나? 그래도 평양성내에 엇전말인가? 그럿치안어허!』

이가티우수며 남수는 죽심의 쌤에다 손등을 부비엿다

『아이고 영감도 또놀리시네! 그러지마서요 그것도넷날말이지 지금은 늙어서 어림도업지 안어요 호! 호!』

『왜그래도 시들어도 매화야 매화지 향내야 다를까 아즉도 나는 자네가 조화 그까지머 지금평양에 장×홍이니 누구니 떠들지만! 내눈엔 자네얼골만 못해보이 든걸허! 허!』

『아이고 농컹맛게 거짓말마서요 그러면왜 각금평양만 드려가시면 주무시고 단이서요 그래도려관에서 혼자는안주무실러이지요』

『컨만의 나혼자자지!』

『그럿치요 그럿쿠말구요! 혼자요! 고만두서요 혼자가다무어야요』 죽심의 말소리는 뭅혼편서도 톡쏘는듯하엿다

『그러면 사내가외입도안을싸? 허! 허!』

『왼젊은 사람도안니요 늙은어른이 밤낫 인물이나 좀 쌕쌕한 게집을 보기만하면 그저××하려고 덤벼드니 그래점잔은 처면에 할일이란 말이요 이제부터는좀 정신을 자리시란 말삽이야요』

『하!—이거누가 머리고 그랫나? 왜화를 바락바락내고야단이야!』

『누가화는 무슨화를 냇서요일을테면 그럿탄말이지요』

죽심이는 자기할말도 다햇다는듯이 상긋우서보엿다

그들이 밥을다먹고난뒤 숙히는밥상을들고부엌으로들어가고 용선이는 소독기(消毒機)를 들고 과수원으로 나갓다

얼마동안 의식(衣食)에 굼주리엿든 그들이다 무슨일이던지 주인이분부하는대로 한마데 말이입박게 떠러지기가 무섭게 그대로실행 하는것이엿다

그날밤이다오래동안고생하든 그들은 왼종일 용선이는 밧게서 숙히는 안에서 식히는일 그대로 다하고 커녁뜻게야자기들의 방으로 들어왓다 넓은뜰안에는 무슨꽃이요 무슨풀인지 일홈도모를 화초가 보기조케자라고 잇섯고그우에는 달빗이 고요히빗최고 잇섯다

月刊詩集『曙鍾』發刊 一日에發賣해

시내어성정삼십번지(市內御成町三〇番地)에잇는 문예월간잡지서광사(文藝月刊雜誌曙光社)에서 주재(主宰)로 월간시집(月刊詩集)을 七月一日에 발간하리라는데 압흐로 독자의 투고(投稿)를 환영하며 대대적(大大的)으로 지사(支社)도 모집(募集)한다 이번창간호(創刊號)에 집필(執筆)한이는 아래와갓다 하며 더욱이 자세(仔細)한것은 서광사(曙光社)로 문의하라고한다 議항이조켓다고한다 馬春曙、孫完允、丁洪敎、李富成、張東明、李性约、金德在、馬均、朴龍熙、金榮俊、盧永錫、金福順、孫龍玉、李貞淑、宋桂月

라듸오

六月二十四日金曜日

▲午前一〇時〇分 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仁川觀測所發表▲同一〇時四五分 料理獻立、日用品値段、鮮魚卸賣相場、京城府廳永座市場發表▲同一一時五九分 正午의時報 뉴ー스▲午後〇時三〇分 義太夫▲同一時一〇分 家庭講座 家庭生活의大義(二)=李智光▲同二時一五分 家庭講座作法의心得(二)=廣田耕司▲同四時〇分 뉴ー스公示事項▲同五時〇分 運動競技大日本大角力狀況三日(三越裏角力場에서中繼)▲同六時〇分 어린이時間(但運動競技업는때)▲同六時三〇分 英語講座(A)初等科(三十一回)=倉由三郎▲同七時〇分 뉴ー스公示事項、職業紹介事項、發表푸로그람▲同七時三〇分 講演 巴里의畵壇을語함=遠田運雄▲同八時〇分 獨唱(A)=柳兼子▲同八時二〇分 映畵레뷰(A)▲同九時〇分 日活오ー케스트라▲同九時三〇分 時報(A) 加賀評定 連續講談(A)繼續하야 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仁川觀測所發表▲西道雜歌=白牧丹、金玉葉 一、愁心歌 二、孔歌明 三、船の歌 四、巫女歌

여름철再發하기쉬운 痔疾과그의治療
早期保存療法과藥을고르는法

青 綠蔭이 욱어질때가되면 痔疾이해甚진다。 세사람이모이면 반드시 한사람은 再發에煩惱하고 잇다。 그것이 輕微한痔核쯤이면또 몰으지만 痔出血、裂痔、核瘻等의사람도 적지안으니가 걱정이다。 特히 結核의進行期에直面하야 잇기때문에 結核性痔瘻가 션금〈患者도몰으는中에 形成되야잇는일이잇다。 注意가 必要치안혼가。

病 가운데도 症狀이急性일것갓흐면 누구든지 直時治療의길을 講究함으로 放念하얏다가 後悔를사는일은적으나 痔漫이 오는것은 하여간 初期放에念하기쉽고 아지못하는동안에病勢가 점점重해져서 自己가 쌔닷게될째에는 벌서生死를彷徨하는 重態에싸지는일이잇다。

脫 肛、大出血、痔瘻! 이러한 靑天의霹靂을 보니 意外의症狀에쌔저가지고 비로서 痛切히 治療의 必要을늣기는者가만으나 그러나 이러한境遇에는 自然여러가지로 주저하기쌔문에 結局業務를廢하며 活動을中止하고서 入院하야가지고 적지안은費用을들여危險과苦痛을무릅쓰고 手術을한다。 多幸이手術이完全히되면 좃커니와 엇지하면 再發이되여서 한層더困難을당하고 목숨까지일어버리는일이 적지안타。 痔疾이야말노두렵다고 말하지안을슈업다。

以 上의結論으로서 痔疾은早期治療가 무엇보다有效하고 또必要한点에留意되시겟지요。 그러나또 早期治療에는 手術과入院이必要가업고 保存療法이라는簡便한治療法으로 훌이解決의길을차즐슈잇는것이다。 保存療法에는 注射藥物들을치나 一般으로는優秀한藥物에依한保存療法이 가장安全하고 效果도더잇을것이다。

루 차말하는것이나 藥의選擇이란것이 問題가되여온다 무엇보다도

痔疾은암흔病인만콤 그藥이란것은 혼이암흥을그치게하는데만主力을다하고 重要한것을곳칠일即患部의組織新生을도아가지고 痔의靜脈叢의鬱血을除할것을 이저버리는者가만은대 오직民間藥으로서는「小松ちの藥」뿐이 이點에까지深甚한考慮를하고잇다。

쌀 아서「小松ちの藥」의 速服은 苦痛을除하고 出血을그치며 化膿을 吸收하고 炎症을消散식힐뿐아니라 서로作用하야 組織新生을 록는効가잇다。 本藥을써서 快癒한者 再發의念慮가 적은것은 이点에잇다고합니다。 여러번 絕望의恐怖에썰든患者가 本藥을쓰고

또 數年來처음으로 깁부기짝이업는 便通의快를맛본實例가 넘어만타 「小松ちの藥」에는 軟膏와坐藥과 內服藥의 三種이잇고 軟膏는痔核、裂痔、痒痔、脫肛等에 坐藥은 痔出血、疾瘻等에 內服藥은便通을 시원스럽게하는効果가잇소。 藥價는各種이다二十錢、五十錢、一圓、二圓인대 東京日本橋玉置合名會社에서 發賣하고全國藥店에서도販賣하오。

痔疾問答

小豆大의疣 (大阪 〇本生)

肛門의外部에大豆大의 疣이생겨 그다지苦痛도업스나 술먹은뒤라든지 季節이變할째암허칠니다。 몸시압흘째는 步行도自由롭지못합니다。 엇던種類의 疾疾일가요。

(答) 확실할것업시 痔核(疣痔)입니다。 疣이破裂하야 有毒菌이侵入하면 무서운痔瘻로變化하는 일이잇사오니、放任해두시면危險합니다。 小松ちの藥의 貼布藥을 써보시요。 二三日지나면 압흔것도업서지고 藥이됨니다。

痔瘻와結核 (甲府 高田生)

痔瘻에 適當한藥을 가르처주시요。 痔瘻또는痔瘻는切開하면 肺病이된다고世俗에서말하오나 事實입니가。

(答) 痔疾藥으로 第一優秀한것은內芽新生의効가잇는것입니다 本邦에서는 小松ちの藥等이 代表的의것이되겟지요。 手術을하면肺病이된다는것은 結核性痔瘻의境遇이겟지요。 結核性이 안인境遇에肺病이되는일은 업슬것임니다。

出血이甚하다 (府下 大下)

妊娠째부터痔가나버저서 쌔쌔로 조회에피가뭇을程度이엿스나 最近은 몸시出血함으로 顏色이납버지고 困難입니다。 조혼療法을。

(答) 出血은 몸시貧血을이르키니다。 餘病等의問題도 잇스니가 注意하시는것이 第一입니다。 適當한痔疾藥을써서 出血을첫치게하지안으면 안됨니다。 自宅에서하시는데는 小松ちの藥等이第一 좃켓지요。

痔疾患者에福音

◉新刊無代進呈

痔疾患者가알어둘 一切의事項을 說明한新刊冊子。 新聞名記入葉書로東京日本橋區瀨戶物町玉置合名會社에申込하시요。

痔로부터救護된 나의★사소한體驗 島田數江

病의場所가場所임으로 남에게 도모지긋짓지안습니다。 나는 産後에 苦心하얏습니다。 不注意로 드듸여痔疾에걸니여서 할수업시 婦人雜誌갓흔데「이럿케곳첫다」는式의 實驗談도손쉽게되는것은 거의다試驗해보앗으나 出血을보게된것은 昨年八月입니다。 쌔마참여름이여서 局部가不潔해지기쉬워서 苦痛은到底히못견딜수업섯습니다。 나의痔가頑固함인지療法의不足인지 어나말로써 할수업섯습니다。 女子의몸인탓으로 手術은처음부터 斷念하고잇섯스나 그대신 藥은 될슈잇는데까지 써보앗스나 곳出血하엿습니다。 나는一生을痔로지나나하고 悲觀하고잇섯슴쎄 무심이雜誌에서「小松ちの藥」을알고 아모뜻업시 사보고싶흔생각이 낫슴니다。 써본즉 여덧시도모지뜻지안습니다 염증이나서 고만두랴고생각할째 마츰便通이잇서서 가본즉 힘안들고 排便할슈가잇섯습니다 意外로생각하고 본즉 疣이 우적어저잇슴니다。 그쌔의 깁븜은 無意識으로큰 소리를내여男便의일음을불은만큼 되엿섯슴니다。 글노부터는順調로 날마다나아지는것이 눈에보일만큼되엿슴니다。 엇지하얏든지 나는完全히 痔疾地獄에서救援된것이오니「小松ちの藥」이라고하면 어느편으로보면古風의일홈인藥인대 이와갓치잘듯는것은 只今일지라도조곰異常스러운생각이듬니다。